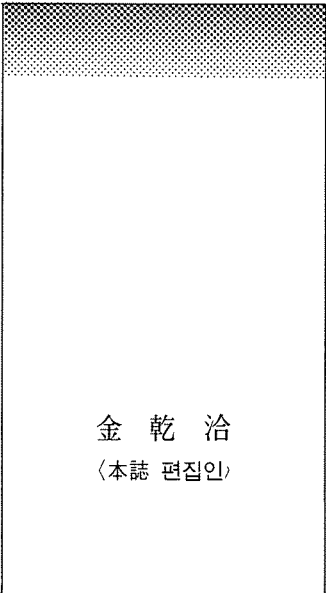


I. 머리말

페르시아灣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中共製 대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한데 대해 美國의 레이건대통령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군사력동원의 가능성을 거듭 밝힘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공급선의 안전보장은 서방세계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80년 美國의 카터대통령은 카터독트린을 발표하여 페르시아灣 지역안보에 대한 美國의 단호한 결의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소련이 페르시아灣의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즉 소련이 서방세계의 석유공급루트를 차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측하기 힘든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페르시아灣위기의 배경과 국제석유시장 전망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페르시아灣사태는 우리나라로서 「강 건너 불」일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의 中東 의존도가 60.5%에 이르고 있다. 만일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면, 현재 원유도입선이 12개국으로 다변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국내석유수급은 심각한 타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II. 페르시아灣의 위기

최근 이라크 공군기의 美구축함 스타크號 미사일공격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이 中東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강화를 노리는 美國과 소련 양대국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초에 걸쳐 페르시아灣岸 정세에 새로운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아랍진영의 이라크를 원칙적으로 지지해온 GCC(페르시아灣협력회의)회원국들이 이라크와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8월의 OPEC(석유수출국기구)총회 이후, 이란은 석유생산감축, 有價인상등 석유문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GCC와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발언도 두드러지게 빈번해졌다. 이를 이란의 대

아랍자세의 변화로 판단한 GCC측이 이란·이라크전쟁의 조정을 위해 이란과의 교섭채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 1월 히수에 열린 회교제국수뇌회의에 참석을 거부한채 이라크 제2의 도시 바스라에 맹렬한 공격을 가했다.

이란의 태도에 실망한 페르시아灣岸제국사이에서 대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지상전의 戰場에 가까이 위치하여 유조선에 대한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쿠웨이트는 소련유조선용을 용선하여 석유를 수송하고, 또 自國유조선의 선적을 美國으로 바꾸어 성조기를 다는 등 대국의 위세를 빌리는 전술로 나왔다.

지난 4월 초순에 열린 아랍외상회의는 이란에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아랍제국이 일치하여 유엔 상임이사국인 5개강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美國과 소련도 페르시아灣 진출에 대한 집념을 갖고 있다. 소련은 페르시아灣岸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美國은 對이란무기 비밀 공여스캔달로 실추된 위신을 회복해야 할 입장이다.



레이건대통령의 페르시아만정책 풍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협조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페르시아灣岸의 장래질서를 고려할 때 이란과의 대립심화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강대국군함은 수평선너머에 있다가 위급할 때에만 달려오는 것이 좋다는 이른바 「수평선전략」을 전통적으로 지켜온 페르시아灣岸제국으로서의 美蘇 양대국의 급속한 세력확대에 대해 심리적인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아랍외상회의의 결의와 美蘇 양대국의 이란 봉쇄 전략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은 외교위기에에서 탈출해야 할 형편이다. 美구축함 스타크號 피격사건의 외교처리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후세 인정권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최근 유럽 외환시장에서 이라크의 政變說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무어의 배경에는 이란의 강경한 자세로 미루어 볼때,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해야하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날수 없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內에서도 무의미하

게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데 대해 「이란에 대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군사적 시위를 하기보다는 전쟁자체에 중지부를 찍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휴전을 유도하려는 환경조성을 위한 막후교섭이 강대국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우디의 파드國王의 다분히 애드벌룬의인 발언도 이라크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Ⅲ. 美蘇의 위기관리

최근 美國이 中東평화회의에 소련의 참가를 인정하는 댓가로 소련은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美國의 정책을 돕고

있다는 비밀거래설이 떠돌았다. 물론 美蘇 쌍방으로부터의 공식확인도 없었다. 그러나 美國과 이란사이의 비밀무기거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괴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中東정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美蘇합작설은 그럴싸하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는 지난 67년 6월 제3차 中東전쟁이 발발한 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이집트가 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中東정세는 一變했는데, 中東평화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각당사자들은 현재 中東평화회의에서 서로 공통사항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中東평화국제회의에서 비밀합의를 보았다」는 이스라엘發 외신이 흘러 나왔다. 이에 대해 美國정부는 지금까지의 평화노력을 수포로 돌릴 우려가 있다고 이스라엘에 경고했다. 「평화교섭방식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솔츠미국무장관이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비밀폭로가 후세인국왕을 어려운 처지로 몰아 넣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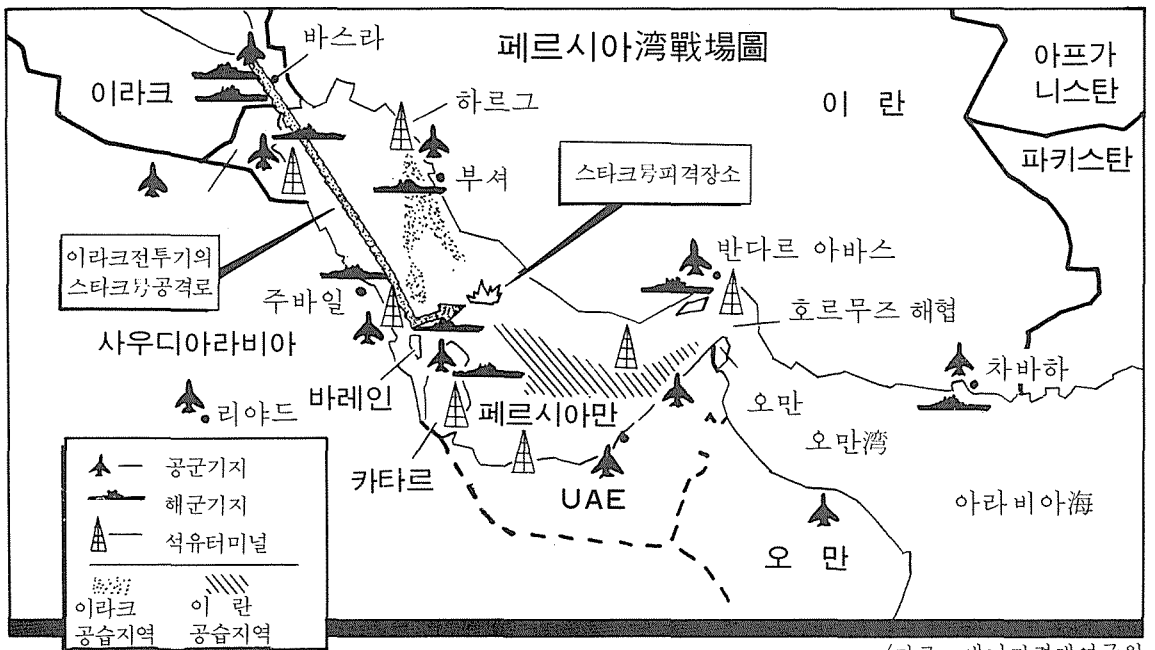
국제회의추진의 주역은 요르단의 후세인國王 외에 이스라엘의 페레스外相, 소련의 고르바초프서기장, 시리아, 이라크등에 둘러 싸인채 국민의 60%가 팔레스타인系的 요르단을 통치하는 후세인國王은 이스라엘과 직접교섭한 이

집트의 故사다트대통령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회의의 우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페레스外相은 요르단이 교섭에 응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평화조약의 역사적 기회」라고 주장, 국제회의에 반대하고 있는 리쿠르트(우익연합)의 사미르수상에 도전하고 있다.

美레이전행정부는 이란케이트로 실추된 아랍운전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美國은 이스라엘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평화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 페레스外相과 사미르수상의 確執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련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PNC(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 알지예총회에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재통일, 국교회복을 전제로 한 이스라엘과의 접촉은 그 布石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회교입장에서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련이 아랍결속을 위해 힘을 합하고 있는 것이다.

속적인 시리아와 이라크의 화해를 소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연출하고 있다.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란을 지지하고 있는 시리아가 이라크와 화해하게 될 경우, 이란의 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립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리비아 국내의 PLO사무소 재개도 리비아와 이라크관계개선에 달려 있다. 소련은 中東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랍수뇌회의가 소련이 참가하는 中東평화국제회의를 정식으로 승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아랍분열상태에 중지부를 찍으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숙원과利害가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 개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즉 ① 국제회의에서의 소련의 역할, ② PLO대표의 참가 ③ 페레스外相이 국제회의방식에서 이스라엘정부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 ④ 美國정치는 대통령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까지가 타임리미트라는 점등이다.

페레스外相과 美國은 국제회의를 각당사자간의 직접교섭에 이르는 儀式的인 것으로서 소련의 역할을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재통일된 PLO가 계속 강경노선을 고집할 경우, 아랍은건과제국은 PLO를 쫓 회의 개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소련과 시리아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하는 미지수는 많다.

中東을 둘러싼 최근의 美蘇각축은 고르바췌프의 등장후 더욱 복잡미묘해지고 있다. 소련은 아랍강경파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灣岸제국, 이집트등 親美제국에 대해서도 급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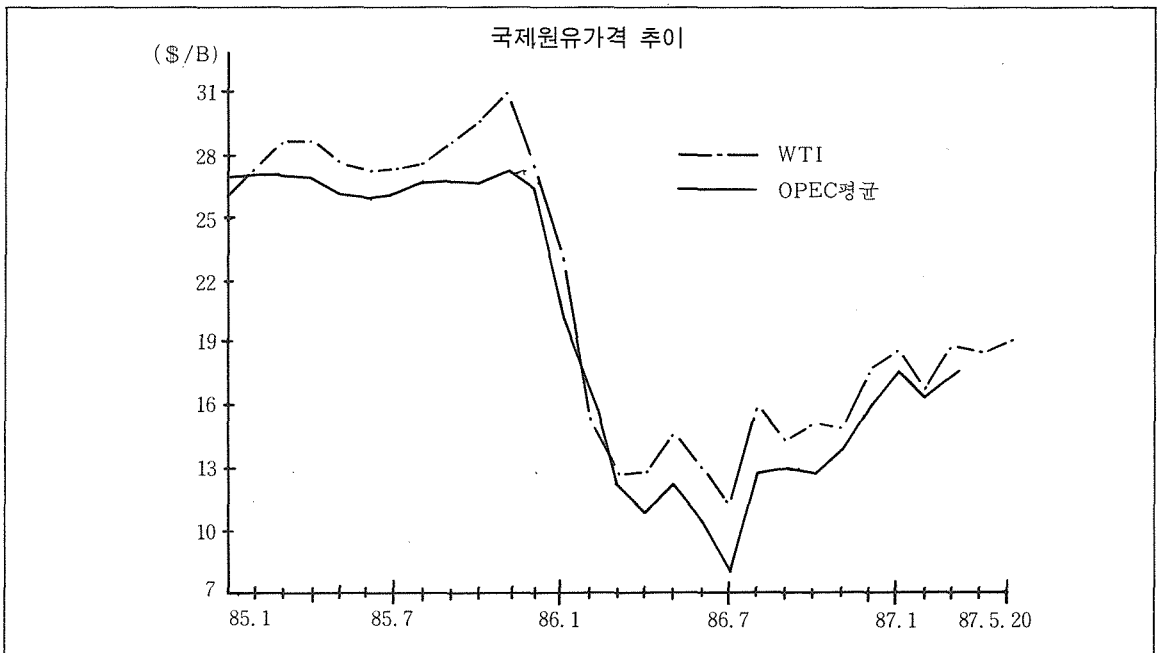
히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美蘇간에는 中東분쟁을 美소의 管理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기본적인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美蘇의 이니셔티브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이란·이라크전쟁 종식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例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美蘇·공동위기관리의 테두리안에서 中東정세는 바야흐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IV. 국제석유시장동향 및 전망

최근 페르시아灣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원유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원유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美國 WTI(西部텍사스産 中質油)의 현물가격은 지난 5월 배럴당 19달러선을 넘어섰고, 유럽시장에서 北海産 브렌트油價도 19달러선에 들어섰다. 이러한 가격수준은 유가폭락전인 지난 85년말의 배럴당 28~30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배럴당 10달러 이하의 바닥권으로 떨어졌던 지난 해 7월에 비해서는 2배로 회복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국제원유가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산유량감산정책



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OPEC는 지난 해 12월 제80차 총회에서 금년 상반기중 산유량을 하루 1,580만배럴로 7.25% 감축하고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制를 실시키로 하였다. 그후 대부분의 OPEC회원국들이 협정위반을 일삼던 과거와는 달리 할당된 생산쿼터를 잘 준수함으로써 금년 1/4분기 OPEC 산유량은 하루 1,580만배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금년 2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制도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페르시아灣위기, 서방석유회사들의 낮은 재고수준, 英國, 北海유전의 생산감소, 여름철 휘발유수요 증가에상당도 油價회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OPEC의 감산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제석유시장여건은 OPEC에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서는 우선 세계석유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6년에 하루 4,720만배럴로 전년 대비 2.5% 증가함으로써 80년대 이후의 감소추세를 벗어난 자유세계 전체의 석유수요는 올해에도 1~1.5% 증가한 하루 4,780만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에 非OPEC산유국중 산유량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던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은 OPEC의 시장안정노력에 협조하여 증산을 자제하고 있으며, 美國이나 英國등지에서는 그동안 油價폭락에 따른 경제성상실로 석유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년중 非OPEC산유국들의 석유공급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혹은 하루 20만~40만배럴 감소한 2,750만 배럴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수요 증가분과 非OPEC 공급감소분을 합친 만큼이 OPEC産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나 재고방출로 나타

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서방석유회사들의 재고방출여력은 크게 없는 실정이므로 대부분이 OPEC석유에 대한 수요증가로 나타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OPEC에 대한 석유수요가 오는 3/4분기에 하루 1,660만배럴, 4/4분기에는 1,830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상당수는 3/4분기에 1,800만배럴 이상, 4/4분기에 1,9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석유시장여건이 OPEC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최근의 관심은 향후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폭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고, 오는 80년대말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배럴당 17달러 정도인 OPEC 평균수출가격은 오는 연말까지는 18~19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가격상승요인으로서 ① 油價회복을 위한 OPEC의 산유량 감산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② 非OPEC산유국들의 공급증가추세가 앞으로는 크게 둔화 내지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③ 자유세계 석유수요도 80~85년의 감소추세를 벗어나 향후 1~2%의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가격상승제약요인으로는 ① OPEC는 성급한 유가인상요인이 세계석유수요의 회복을 저해하고, 非OPEC산유국의 공급증대를 야기하여 세계석유공급과잉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유가폭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가인상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고, ② 美國등 선진소비국내에서도 유가급등이나 급락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 점차유가안정을 회구하고나섰으며, ③ OPEC가 하루 1,000만

국제원유가격 전망

(單位: \$/B)

	油 種 別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WEFA	OPEC平均輸出價(f. o. b)	28.09	13.81	15.72	17.23	18.74	21.23	23.72	25.62
	W T I 現 物 價	28.00	15.18	17.00	18.50	20.00	22.00	25.00	26.88
DRI	세 계 평 균	27.58	14.48	17.23	18.05	18.96	-	-	-
IMF	12大산유국平均輸出價	27.16	13.08	15.00	15.47	15.93	16.41	16.90	-
KIET	OPEC平均輸出價(f. o. b.)	28.09	13.81	17.50	19.00	20.00	22.00	24.00	26.00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987.

DRI, *European Review*, April 1987.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987.

배럴을 상회하는 유류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OPEC의 산유량이 지난해 12월 총 회에서 합의된 생산쿼터를 훨씬 초과하는등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가격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V. 맺는 말

최근 美國에너지정보국은 호르무즈해협봉쇄와 관련된 이색적인 가상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국제석유시장의 장기전망을 통해 페르시아灣의 입구인 호르무즈해협이 6개월간 봉쇄될 경우, 하루 8백만~9백만배럴의 원유수송이 막혀 원유가격은 배럴당 55~9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시나리오는 호르무즈해협이 오는 95년 1월 1일을 기 해 봉쇄되고 당시의 원유가격이 배럴당 35달러 수준이라

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소비국들은 원유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결국 원유가격은 배럴당 55~9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中東지역은 초강대국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어 파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제원유가격은 오는 80년대말까지는 대체로 배럴당 18~19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OPEC의 국제석유시장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6년 현재 41%인 OPEC의 시장점유율은 오는 90년부터는 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대체에너지개발 □

低油價로 심각한 타격받는 브라질의 알콜보급확대계획

그동안 브라질에서 대표적인 代替에너지로 각광을 받아오던 연료용 알콜이 국제원유가격하락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브라질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연료용 알콜과 휘발유의 가격차 축소, 알콜산업에 대한 보조금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정책개선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원유가격과 경쟁하기 위해 알콜가격을 낮게 유지할 경우, 페트로브라스(브라질石油公社)의 적자부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정책개선안의 주요내용은 ① 알콜가격을 인상하여 휘발유와의 가격차(알콜이 35% 저렴)를 축소하고 ② 알콜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며, ③

알콜차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철폐하고, 자동차가격도 휘발유차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브라질은 지난 73년의 제 1차석유위기로 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75년부터 국가알콜계획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모두 65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알콜생산능력은 연간 1천 6백만Kℓ에 이르고 있다. 또 알콜의 보급확대를 위해 가격을 휘발유보다 35% 낮게 책정하여, 알콜차는 전국의 1천 1백만대중 3백만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최근의 신규제작차의 96%가 알콜차이다.